칼 럼

비우고 채우면서 사는 보람 있는 삶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물레방아가 얼지 않으려면 돌아야 하고 물레방아가 돌려면 끊임없이 물렛살바퀴 물통에 물이 채워지고 채워진 물은 다시 비워져야 한다. 채우려는 것은 욕망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사람은 욕망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보람과 재미로 산다. 채워진 것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비워야 하는데 비우는 것은 베푸는 즐거움이 따르며 베푸는 데는 탄력과 에너지가 발생하여 좋은 일을 하게 되며 국가 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불신과 부정적 사고로 채워져 있다면 긍정적 사고와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지식정보 기능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보수적인 생각과 지식 정보는 버리고 비우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물적인 돈과 재산도 정체되지 않고 유통되고 변화가 있어야 늘어난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비우는 일을 꾸준히 하다가 생을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부지런히 채우는 일을 하면서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우는 일을 꾸준히 하는 즐거움과 보람에 사는 사람이다. 물레방아가 속도를 내서 돌려면 물이 채워지는 것이 빨라지고 그에 따른 비우는 일도 빨리하는 것이다. 빨리 채우고 빨리 비우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면서 물레방아는 돌아간다.

비우는 일을 주저하고 머뭇거림은 속도를 더디게 하며 발전이 늦어지게 한다. 비운다는 것은 바뀌는 변화를 말하며 더욱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식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꾸준한 노력으로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며 이것을 비우는 활동은 내가 가진 지식정보를 비우기 위해 꾸준히 누구인가에 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는 것이 쉽게 배워지며 돈과 재산도 비우기 위해 베푸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과 재산을 쉽게 모을 수 있게 된다.

물레방아가 물을 채우고 비우면서 돌아가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루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비우고 채우는 자연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많은 것을 비우고 채우다 마지막 죽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베풀며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 가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며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려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살려면 꾸준히 채우고 비우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돌아가는 물레방아 앞에서 세월의 흐름이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한해가 지나면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레방아는 축에 물레살(8,12,24)이 있고 물레살은 축바퀴를 이루며 물렛살이 만든 축바퀴에는 여러 개의 물통이 이어져 있다. 축바퀴의 물통에 물이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물레방아는 돌아간다. 하나의 물렛살이 1년 12달 중의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며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것도 1년이다. 따라서 세월의 흐름은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빨리 지나고 있으며 물레방아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채우고 비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해가 지나면 새해를 맞이한다. 새것으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새것을 채울 수 있다. 비어 있는 마음은 새것을 맞이하려는 겸손한 마음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비어 있는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내가 이루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가을철 축사화재 예방이 우선

기 고

이 재 욱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낮에는 아직까지는 덥지만 저녁과 새벽에는 싸늘한 가을이다. 그래서 축사 내 보온시설 설치와 난방시설을 가동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축사 시설은 볏짚 및 보온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주변에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으며 구조 또한 경량철골 조 구조로 부직포 등으로 축사 전체를 덮는다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되어 화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축사는 대부분 산속이나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화재발견이 어려워 119신고가 늦고, 소방차의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진입로가 협소한 농로로 되어 있어 대형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가 원인이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와 노후화된 전선을 점검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노후화된 전선은 발견 즉시 교체해야 한다. 배전반의 먼지와 거미줄은 수시로 제거해야 하고 아크차단기를 사용 설치를 권장한다.

둘째, 축사는 크고 작은 보수 공사 등으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은 편이다. 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을 사전 제거하고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땐 반드시 근거리에 소화기(2대 이상)나 소화수를 비치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셋째, 축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각 중 바람에 의해 불티가 볏짚 등 가연물이 날릴 수 있기에 주위에서의 소각행위도 관계인이 나서서 방지해야 한다.

넷째, 도로 입구에는 축사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소방차의 현장 도착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용수를 필히 확보하여 주고, 특히 고압분무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는 화재발생시 고압분무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여 재산보호에 앞장서야겠다.

축산업은 많은 자본금이 투입된 농민들의 소득원이며 재산이다.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축사관계자의 자율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 전, 후 축사시설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상한 물건 발견 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

기 고

김 덕 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피로로감을 해소하고자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 같아 본 지면을 빌려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모처럼의 휴식을 위해 여행객이 운집하는 전국의 주요 공항, 유명 관광지와 피서지에서의 테러 및 국제범죄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만약 공항, 터미널 등 혼잡한 곳에서 총격이나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동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 번째, 만약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면 총 소리 반대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몸을 숨길수 있는 장소나 물건을 찾아야 한다.

대피장소가 만약 지하실이나 방이라면 제일 먼저 문을 잠그고 소등을 하는 한편 112또는 111에 재빨리 신고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핸드폰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로 폭발물 테러 의심물체를 발견했다면 절대 호기심에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일단 의심물체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다음 경찰이나 국정원, 군부대에 신고를 하는 한편 폭발음이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고 폭발음이 멈추면 반대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현명한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세 번째로, 마약범죄 연루 등 국제범죄에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힐수 있는데 공항이나 지하철, 열차, 항만 이용시 모르는 사람이 수고비를 준다며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 달라거나 여행 중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금물이거니와 갖은 핑계를 대며 ATM 대신 인출요구를 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여 국제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상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테러 및 국제범죄 피해 예방 대응요령을 숙지해두는 한편 만약 테러나 국제범죄 의심 징후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국정원, 군부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기 고

이 재 웅 화순소방서 예방홍보팀 소방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준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신길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나는 감지기의 경보음을 옆집 거주자가 듣고, 신속히 소방서로 신고해 화재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는다.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간편한 사용 방법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다. 지난 7월 순창 쌍치면의 한 주택에서는 온수기로부터 일어난 화재를 미리 비치해 놓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두 사건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의 주택은 소급설치토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